

미국 통상대표부(USTR)의 2006년 Trade Agenda

1. 정책방향 : 사전 대처하는 통상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성장

- 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(knock down)
- ☐ 장애물 제거는 미국 농부, 노동자 및 서비스 근로자를 포함해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외국고객의 95%에게 더 좋은 시장접근을 제공
- ☐ 자유무역은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과 구매력을 확대
- ☐ 2005년 미국 상품과 서비스는 GDP의 10.4%를 점유

2. 2006년 Trade Agenda

- ☐ 국제 통상회담(Global Trade Talks)
- ☐ 쌍무 및 지역 통상협정(Bilateral &Regional Agreements)
- ☐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및 통상협정의 강화

3. 국제 통상회담(Global Trade Talks)

□ WTO 도하 개발라운드(WTO Doha Development Round) 본격 추진

-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담에서 진전
- 최종 합의는 2006년 말로 기대
- 부시대통령의 통상촉진권한(TPA) : 2007년 7월 1일부로 마감 예상
- 3대 주요 협상 분야
 - 공산품
 - 서비스
 - 농산품

□ 공산품(Manufactured Goods, NAMA) : 관세인하

- 공산품은 전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62%를 차지
-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 후 82% 수출 증가
-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2005년 수출액은 7,820억 달러에 달함.
- 협상시한 : 금년 4월 30일까지 관세인하 제안 마감
- 형식 : 홍콩 WTO 각료회담 선언으로 스위스가 제안한 방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, 추진키로 함. (스위스 방식은 낮은 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낮추기 방식)
- 실질적인 관세 삭감을 위해 선진국과 선진개도국에 모두 적용
- 주요 분야와 비관세장벽에 중점을 두고 추진
- 미국 관세율은 평균 3%인 반면, WTO 회원국의 평균은 30%

□ 서비스부문

- 미국은 2005년 3,790억 달러를 수출해 5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
- 미국 수출액은 지난 11년간 89% 증가
- 홍콩 WTO 각료회담에서 도하라운드 마감 이전에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 합의
- 최근 WTO 회원국들은 서비스시장접근과 다수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상을 금년 초 시작하기로 합의
- 특히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더욱 좋게 만들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해야 함.
- 미국은 서비스부문에서 가장 시장이 개방되어 있음 (미국 60% 이상, WTO 평균 35% 수준).

□ 농업부문

- 2004년 7월 프레임워크 위에 기초를 세움 - 3개의 기둥(Pillars)
 - 관세 인하로 시장접근 확장
 - 모든 수출보조금 철폐
 - 통상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
- 홍콩에서 미국은 수출보조금에서 구체적인 진보를 만들어 냈으며 아울러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

□ WTO 가입

- 현재 30개국이 가입을 희망
- 필수조건 :
 - 농업,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위한 쌍무협정
 - WTO 규칙에 eoks WTO 실무단에서 다자간 협상

○ 향후 가입

- 2006년에 가입전망국 : 베트남, 우크라이나, 러시아, 카자크스탄
- 이들 4개국에 대한 영구정상무역관계(PNTR)에 대한 의회 비준 필요

□ 일반특혜관세(GSP :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)

-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
- 부시대통령 2007 회계년도 예산에 향후 5년간 연장 요청
- 미국에는 산업의 선택을 확장한 반면, 개도국은 경제기회를 창출
- 2005년에 267억 달러의 수입이 GSP 혜택 받음.

4. 쌍무 및 지역 통상 협정(Bilateral &Regional Agreements)

□ FTA(Free Trade Agreement) 효과

- 미국과 FTA 체결국들의 GDP는 세계 GDP의 15%(7조 3천억 달러)
- 미국 수출(9,040억 달러)의 54%(4,850억 달러) 차지
- 2001년 FTA 체결한 4개국에 대한 수출은 21% 증가한 반면, 미체결국들에 대한 수출은 10% 증가

□ FTA(Free Trade Agreement) 진행상황

- 기체결국 : 오만(조인완료), 페루(의회에 승인 요청)
- 2006년 중 완료 : 파나마, 태국, 콜롬비아, UAE
- 신규 : 한국
- 협상 지속 : SACU(남아프리카관세동맹), FTAA(범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), 에콰도르

☐ 한국

- 2006년 2월 2일 의회 양당 지지로 협상개시 선언
- 미국과 한국에 큰 혜택을 줄 전망
- 한국은 2005년에 미국의 교역파트너 7위(714억 달러)
- 미국은 2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한국에 수출
- 2005년 미국 농산물의 6대 수출국(22억 달러)
-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큰 경제국가(2005년 9,830억 달러 구매력)
- FTA 발효시 미국 농업, 서비스업, 공산품에 큰 혜택을 제공

5.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및 통상협정 강화

- ☐ 양국간 의견조정 강화
- ☐ WTO : 도하라운드, WTO 가입, 現협정에 대한 엄격한 집행
- ☐ FTA 협상 촉진 및 추진
- ☐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 강화
- ☐ WTO 분쟁 케이스 해결

6. 시사점

- ☐ 미국 USTR은 Mr. Rob Portman이 대표대사로 부임한 이후 매우 강경한 대외협상을 추구한 결과, 대 중국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아울러 미국에 유리한 섬유협정을 체결하였음.
- ☐ 특히 부시대통령은 FTA가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FTA 체결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통상촉진권한(TPA)를 2007년 7월 1일까지 부여받음.
- ☐ 따라서 2006년에도 미국의 외국시장 개방을 위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

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미국이 FTA 추진이후 가장 큰 시장인 한국과의 FTA에서 한국의 공산품 시장은 물론 농업과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.

(자료제공: 뉴욕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양행민 (☎3779-6676)

E-mail : haengmin@koreaexim.go.kr